

보도시점 2026. 7. 23.(목) 11:00
2026. 7. 24.(금) 조간

배포 2026. 7. 23.(목) 09:00

‘추억은 챙기고 과일·소시지는 두고’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 검역 인력·탐지견 집중 배치,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활용 등 입국장
검역 강화(7.27~8.7)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7~8월)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3,801건(34톤)과 축산물 1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폐기 처분되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5년 기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엑스레이

(X-ray)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향후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첨단 검역 기술을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불법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및 홍보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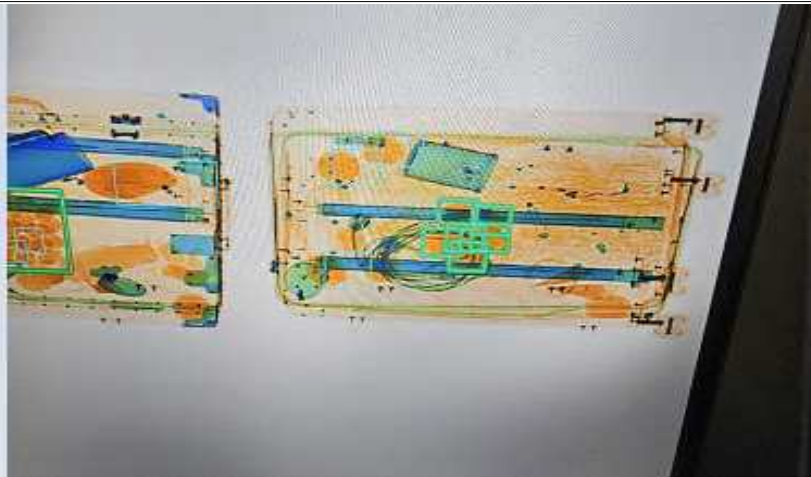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책임자	과 장	강민수 (054-912-0601)
		담당자	사무관	이혁인 (054-912-0612)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책임자	과 장	이재명 (054-912-0416)
		담당자	사무관	장우석 (054-912-0422)

붙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및 홍보 관련 사진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활용 검역대상물품 탐지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검역대상물품 자동 탐지 모습(녹색 네모)



검역탐지견 활동 모습



생과실, 육포, 소세지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인플루언서 협업 국경검역 유튜브 콘텐츠 홍보